

# 傳統地域理論에 準據한 龍潭面の 住居景觀相

許 濬 · 盧 載 鉉

又石大學校 自然科學大學 造景學科

## Finding an Archetypal Landscape of Yongdam Village Conformity with Traditional Region Theories

Huh, Joon · Rho, Jae Hyu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Woosuk Univ.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rough the algorithm of traditional region theory how nature has been recognized and occupied and harmoniously used by human beings. As seen Korean traditional villages, the natural elements such as mountains and streams in Yongdam are more remarkable than the artificial elements. The people in the village regards a radius of 4-12 km as their territory and an ideal space harmonized with natural landscape.

The landscape structure of Yongdam shows traditional fengshui form and has a all the characteristics that Korean rural villages have. The landscape elements, such as mountains, rivers, plains, trees, soil color, etc. characterize Yongdam village and make the landscape of Yongdam a unique place.

Traditional region theory is to study an emotional reaction to the quality of life, and landscape of a settlement. And it should be a basic theory to understand the whole landscape.

## I. 序 論

### 1. 問題의 提起

現象에 대한 인간의 인식욕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는 바, 특히 이에 대한 학문적 욕구는 자연적·사회적 세계를 제어함으로서 보다 나은 세계를

지향하려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발전을 위한 자극임이 분명하다. 現象에 대한 인식방법 또한 사회적, 역사적 상황과 문화적 토양의 기초 위에 대단히 다양한 양상을 보여왔다(韋, 1993). 특히 자연과학의 주요한 연구 방법론(methodology)의 하나로서 認識論的(epistemological) 물음은 '현상에 대한 解釋과 說明 더 나아가서 豫測의 바람직한 틀을 세우며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모색하는 방법으로 歐美의 認識論的 접근 관점인 이론의 객관성과 과학성에만 집착하지 않는다면 전통마을과 같이 오랫동안 환경에 적응해 본 전통공간의 의미 등 인식적 요소가 강한 지역계획의 공간구조는 물론 景觀相과 景觀主題를 찾는 데는 매우 유효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 지역이론은 그 분석과 설명에 있어 적지 않은 연구상의 限界 또는 難點이 존재하나 이는 '시간의 差'를 무시하고 현대 지역이론의 시각에서 전통적 지역이론을 분석하고자 함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론의 通時性和 관련된 '시간의 差'와 인식, 사고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구미와 전통적 입장의 차이는 연구상의 限界나 難點의 깊이와 폭을 더욱 심화 확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계와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전통적 지역이론을 原典 그 자체의 '사실' 또는 '字句' 보다는 그 '字句의 밖'에 外延되고 가려진 '意味'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문제해결의 출발이고 대안의 제시인 것이다. 전통적 지역이론의 이해는 항상 문자의 밖에서 사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자연환경이란 거의 없으며 따라서 지리적 환경이란 단지 자연적 성격으로만 규정지을 수는 없고, 비교하자면 風土의 개념과 비슷하다. 風土란 주어진 자연환경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법과 제도 등 문화를 창출하여 이룩해 놓은 「분위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리적 환경 또는 전통 지역이론이란 굳어져 있는 것, 즉 定說化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 2. 研究의 範圍 및 目的

마을이란 집들이 모여서 된 하나의 공간적 단위로서 모듬살이이며 기초 행정구역이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향으로 자리잡은 하나의 실체이다. 국내 마을연구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식민통치를 위해 養生永助(1933)가 조사 정리한 '朝鮮의聚落'을 효시로 그 후 마을연구는 민속학, 지리학, 사회학, 인류학, 역사학, 법학, 행정학, 건축 및 조경학, 지역사회개발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접근되어 왔다. 기존의 마을연구들은 각각의 관점에서, 연구대상인 구체적인 마을을 하나의 체계로서 접근하기도 하지만 마을을 하나의 실

체로 전제하여 접근하는 연구들은 '마을이 하나의 체계를 이룬 실체됨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유형화되곤 하였다(박서호·박창홍, 1993).

특히 농촌거주지 경관연구에서 주요 관심을 보이는 것은 山水, 聚落形態·土地利用形態 등이며, 이것들은 크게 사실적이고 분명한 물질적인 기능적 경관과 경험적이고 상징적이며 미적 감각에서 의식되는 인식적 경관으로 나뉘진다.

전통지역이론으로 擇里志理論-地理를 中心으로-은 전반적으로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나, 占卜的 요소를 완전히 탈피하고 오히려 지역계획, 국토계획에까지 응용될 수 있는 이론체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며(김홍식, 1987), 지역이론의 주요 관계분야인 현대지리학에서는 풍수지리 자체도 전통적 지리과학으로서의 기능이론적 가치에 대한 공통적 인식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음이 기능이론으로서의 擇里志理論에 대한 準據로 반증되는 것이다(韋, 1993). 또한 택리지이론의 「地理」에서는 공간을 인간이 점유하는 내부공간과 殘部空間인 외부공간으로 구분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외부공간을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 생각하고 자체의 구심적 질서 위에서 형성된 공간과 인간을 포함하는 외적 환경으로서 무한히 전개되는 원심적 공간인 자연으로 구분하는 水口/山形/野勢/土色/水理/朝山朝水를 주거에 적용하는 방법론을 취함으로써 風土性을 반영한 기능이론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제시될 수 있다.

「擇里志理論」은 현대 지역이론과 마찬가지로 비판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想定할 때, 그것이 지니는 이론체계 및 그 이론적 含意를 獨白의 이론체계로서 발전시켜 나가되 현대 지역이론에 원용하는 이론적 통합이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적 지역이론으로서의 擇里志理論 및 相宅志 중 空間 및 景觀現象으로서 '地理 및 勝概'를 분석함에 있어 地理, 山水 등의 자연경관을 인간이 어떻게 인식하고 점유하면서 조화롭게 영위해왔는가 하는 그 有意味性을 도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 II. 研究方法

### 1. 理論的 背景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山高水麗하여 高麗라 했고 아침이

맑은 고요한 나라라 하여 朝鮮이라 불려 왔다. 특히 자연경관은 四季가 뚜렷하고 산세가 좋아서 水木石이 어우러진 훌륭한 風景美를 간직하고 있으며, 선조들은 자연의 질서속에서 애착을 갖고 생활하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였다. 즉, 자연과의 調和, 融合原則에 근거하여 자연에 순응하고 이해하려는 관념하에서 좋은 자리를 찾고, 그 지역 특유의 자연정취를 이용하여 八景 등의 傳統景觀相을 경영해 왔다.

한편 삶의 공간을 卜居란 주제로 정립한 李重煥의 '擇里志論'과 연계시켜 볼 때 卜居란 삶의 공간을 적합하게 선정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樂土와 卜居의 人間定住 개념으로 제시되는 地理, 山水와 같은 자연환경과 人心, 生利와 같은 사회환경적 또는 문화적 측면이 통합된 체계내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樂土와 卜居의 요건을 두루 갖춘 우리의 村落이나 邑城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훌륭한 삶의 공간이 되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춘 곳을 의미한다. 또한 오늘날 인간성장과 전개, 계획을 하나의 틀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사회환경적 측면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는 卜居總論에서 地理/生利/人心/山水를 통합된 이론체계 내에서 고찰하고 있는 擇里志理論과 그 軌를 같이 하고 있다.

오랜 세월 무수한 地域(空間),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형성된 복합론적 이론체계를 究明하고 새로운 의미로 理解, 理論化하기 위하여는 문헌의 조사, 연구가 의미있는 수단으로 제시된다. 이는 文獻을 통해 인간의 행위와 그 產物이라 할 수 있는 사회현상의 의미를 解明할 수 있음에 근거하며, 문헌의 '解釋的 理解'가 그 분석도구로서 기능한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헌은 現在의 視點에서 지역이론의 의미로 이해되어 질 수 있는 傳統思想/理論의 總體, 즉 전통적 지역이론 중 주요한 지역이론체계를 지닌 문헌을 지칭한다.

## 2. 研究對象 및 方法

擇里志 패러다임의 概念的 圖式에서는 地理/生利/人心/山水 개념이 하나의 개념적 틀 속에서 이해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 전통지역이론 모형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전라북도 진안군 龍潭面의 住居景觀象은 空間現象(spatial phenomenon)으로서의 분석이므로 準據定立의 관심분야는 주로 「地理」 및 전통적 기능이론적 성격에 가까운 相宅志의 「卜基」卷 地理, 勝概 개념에 관련된다. 이론모형과 관련

하여 「地理」를 분석하면 地理는 상호내부적 일관성(internal coherence)을 지닌 하위규범-또는 조건- 즉, 水口/野勢/山形/土色/朝山朝水 등을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또한 평가된다. 또 제 하위규범은 인간의 상호관계로서 설명된다.

본 연구에서는 龍潭地域을 연구의 대상으로 地理·景觀의 概觀을 살펴보는 한편 본 지역의 住居景觀相을 「地理理論模型」에 적용하여 이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편 이를 위해 서울대 규장각 소장 용담군의 해동지도(1750) 및 龍潭 八景을 통해 공간현상에 따른 실제적인 주거 및 인간/환경의 관계에 관한 有意味性을 보완, 모색하도록 하였다.

龍潭縣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우선 現 鎭安郡 龍潭面은 용담댐 건설로 인해 마을 대부분이 수장됨으로써 자연 및 문화경관의 상실을 감수해야될 입장임으로 이와 유사한 개발계획 수립시 신중한 가치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또한 기록만이라도 보존이 요구된다는 당위성에서이다. 또한 龍潭은 과거로부터 산수가 수려할 뿐 아니라 지역 중심이 되는 下渠里의 경우 2중구조의 마을 풍수가 전혀 내려옴으로 전통적 지역연구에 중요한 客體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해동지도 및 八景이 전해지고 있어 지역연구의 문제점임 通時性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효하며 이는 의미 이해의 충분한 자료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Ⅲ. 龍潭面의 地理와 勝概

### 1. 理論體系의 概觀

#### 가) 擇里志

「擇里志」가 전통적 지역이론으로서의 핵심적 가치를 지닌 주요 연구문헌임은 지역이론으로서의 涵意를 지니는 여타의 전통이론 중 연구가 다양한 접근방법에 의해 이해되고 있는 사실에 의해 증명될 수 있다. 「擇里志」는 총 22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地誌的(topographical) 성격을 지니는 「八道論」과 지역이론(regional theory)의 체계를 지니는 「卜居論」으로 구분될 수 있다. 「地理」는 「卜居論」 제 11편 陽宅論에서 논의 되고 있는 바 地理는 상호 내부적 일관성을 지닌 水口/野勢/山形/土色/水理/朝山朝水의 6개 하위기준에 의해 구성, 평가되며, 제 하위기준은 인간과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설명된다.

「地理」는 기능이론으로서의 擇里志理論을 분석함에 있어 가장 주된 관심분야로서, 擇里志理論의 전체적 이론 틀 속에서 기능이론으로서의 畧意 및 理論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으로 이론의 究明과 그 準據定立을 위한 핵심개념인 동시에 이론체계라 할 수 있다. 특히 기능이론으로서의 擇里志理論 중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공간현상과 '畧'을 지향하는 구체적 이론모형으로서 적용할 수 있으며 擇里志理論의 일관된 사상의 흐름인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중시하고 그러한 이론 틀 속에서 구체적 설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유기체인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것으로서 인간이 거주하는 장소(공간)으로서의 환경과 인간의 상호관계성과 물리적 환경의 주체인 토지환경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근에야 인식하기 시작한 구미의 기능주의적 지역이론과도 그 철학적·물리적 이해의 軌를 같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地理」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상호내부적 일관성을 지닌 하위기준, 즉 水口/野勢/山形/土色/水理/朝山朝水 등을 기준으로 설정·평가되며 이는 擇里志理論의 일관된 흐름인 인간과의 상호관계로 설명·평가된다.

나) 相宅志

서유구(1764-1845)의 '林園十六志' 중「相宅志」는 17-19세기의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많은 문헌을 종합, 인용 새로운 지역이론체계를 구성하였는데, 내용의 인용은 있으나 그 이론체계 및 개념화에 있어서는 독자적 이론체계를 지니고 있다.

相宅志는 다수의 인용문헌 중 특히 「增補 山林經濟」와 「入域可居志(擇里志)」를 이론체계의 근간으로 종합 정리하여 그 내용을 체계있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相宅志는 이론체계에 있어서도 민간신앙적이고 卜居的 요소가 다분한 지역이론으로서의 「山林經濟」와 그와 같은 성격을 배제하고 과학적 객관성을 확보한 「入域可居志(擇里志)」와의 중간적 관점에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林園十六志(相宅志)」는 지역이론의 분류상, 보다 '傳統的 機能理論的' 성격에 近似한 이론체제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相宅志 중 「卜居/營治」卷이 지역이론으로 분석될 만한 부분인 바, 특히 그 이론체계, 내용상 '卜基' 卷이 본 연구의 주된 研究對象이 될 수 있다. 특히 전통적 지역이론으로서의 相宅志의 勝概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勝概」는 자연경관 그 자체를 의미하는 바 相宅志에서는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정신건강상의 利點을 논하고

있다. 그리고 勝概로서의 '名山' '佳水'로부터의 적정공간 거리로 10里-30里的 거리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는 환경의 美와 경제활동을 모두 고려한 입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龍潭面の 概觀과 龍潭八景

가. 龍潭面の 變遷과 地勢

조선조 중종25년(1530년)에 李荇 등의 增補로 조정에서 간행한 인문지리서인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龍潭縣의 形勝은 '땅은 窮僻하고 하늘은 깊다.'고 하였다. 또한 '바위는 기이하고 나무는 노후하다. 구름다리가 산에 걸리고 돌길은 시내에 연해 있다.

표1. 용담면의 행정구역

龍潭面					
北面	郡內面				
松豊里	月溪里	虎溪里	臥龍里	壽川里	玉渠里
松峴里, 豊德里	三亭里, 月溪里	虎溪里	臥龍里, 玉渠里一部	壽川里, 元長里	雲橋里, 玉渠里一部

洞口門은 깊숙하며 백성은 드문드문 하다.'고 하였다. 또한 윤소종의 詩에 '좁고 맑은 물이 여러겹 蒼壁간에 흐른다.' 하였다.(진안문화원, 1997) 龍潭面은 백제때 勿居縣, 신라 경덕왕때 淸渠라 불렀고, 고려시대 충선왕 5년(1313)용담으로 고쳐 현령을 두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내려오다가 고종 32년(1895) 郡이 되었고 1914년 군면 폐할 때 이웃 진안군에 병합되었으며 치소는 용담면 玉渠里였다.

龍潭面은 鎭山인 龍岡山의 맥이 흘러와 명당관을 형성시켜 놓았고, 한 가운데 동천이 있었다. 太古亭이 자리한 곳은 용강산의 맥이 닭모산을 거쳐 右白虎를 형성시켰으며 右白虎자리를 보강하기 위해 천혜의 절경에 정자를 세우고 인위적으로 숲을 형성시켜 놓았다. 예전에는 수백그루의 소나무가 에워싸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왼쪽으로 진안, 금산으로 빠지는 방향에 남산인 左靑龍이 길다랗게 용담현을 감싸안고 있다. 용담현 앞으로 흐르는 주자천은 운장산에서 발원하며 주자천 건너편의 매봉산은 용담현의 案山에 해당한다.

용담현에서 보면 주자천이 빠져나가는 곳이 虛하기 때문에 수구막이로서 숲을 조성해 놓았는데 이곳을 '숲거리'라고 부르고 있으며 얼마 떨어지지 않은곳에 선돌을 세운

것도 이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된다. 용담향교는 용강산의 맥에서 흘러와 음부의 명당혈에 자리잡고, 안산인 매봉산에서 용담현으로 힘차게 흘러온 男根같은 쇠쫓뿌리가 龍潭縣으로 뻗어오는 기운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하여 裨補的 성격으로 쇠쫓뿌리에 대응하게 돌거북을 세웠다. 거북은 영물이면서 그 머리는 마치 男根을 상징하기 때문에 男根인 쇠쫓뿌리의 기운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 龍潭縣의 住居(定住)景觀相은 16C중반 그려진 것으로 알려진 해동지도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그림 1 용담현 해동지도(서울대 규장각, 1750년대)

표2는 해동지도에서 지칭한 정주지로서 용담현의 주요 경관요소를 舊邑을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중 山水와 住居 그리고 외부 領域과의 接點이 주로 표기되어 있는 바, 그 거리는 2리로 부터 40리로 대부분 10리~30리의 거리내의 경관요소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相宅志 「勝概」에서 언급한 名山, 佳水와의 10리~20리 領域權을 住居環境域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나. 龍潭面의 聚落景觀相

龍潭을 비롯한 전북 산지생태권의 취락경관은 뒷산을 등지고 그 산록에 한전, 그 경계선에 주변 입지적 集村, 그 밑으로 곡저평야를 향하여 불규칙한 水田이 전개되는 모습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는 다시 계곡을 흐르는 계천들 주

변의 수전들과 어울려 계곡마다 하나의 생태권을 형성하게 된다. 대체로 가옥들은 물을 구할수 있는 井線을 따라 불규칙하게 모여 塊村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씨족사회의 경작형태에서 전통과 사회안보적 필요성에서 기인한다 하겠다. 용담지역에서도 산간계곡 어디서나 나타나는 취락경관 형태가 바로 이러한 입지적 集촌(peripheral-located cluster village)이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상하는 고향마을의 典型인 것이다.

표2 해동지도를 통해 본 정주지(Human Settlement)로서의 용담현

구성요소	주요 내용	
자연(Natural)	山	馬山(東30里), 九峰山(西20里), 龍剛山(西3里), 玉女峰(南10里), 珠山(西30里)
	川	達溪川(東12里), 顔子川(東20里), 程子川(南15里)
	臺	適雨臺, 四美臺(東40里)
	巖	臥龍巖, 半日巖(西25里)
주거/외형(shelts)	龍潭鄉校(北2里), 客舍, 深院巖, 太古亭, 송암사, 城隍寺	
연계망(Networks)	栗峙(東30里), 松峴, 柵峙, 달계역(東5里)	
인간(Human)		
사회(Society)		

자료:C.A. Doxiadis(1968), Ekitics: An introduction to science of Human Settlements, Hutchin Co. Ltd. London, p836을 필자가 재구성함

특히 산간곡저의 경토화 과정에서 형성된 「물+경작지=통합체」는 이 지역 경관의 한 전형으로 정착하게 되고 보·제·언 등의 수리시설들을 수축 유지하는 촌락공동체 중심 수리체계(community-oriented irrigation system)가 형성되게 되었다.

여기에 예로부터 이들 산간분지와 산간계곡에 발달한 크고 작은 취락들에 시장·수리·행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점을 가진 취락들의 지역중심지(local center)로서 발달해왔음을 엿볼 수 있다.

다. 龍潭八景

龍潭面에는 옛부터 膾炙되어 오는 이 지역 풍토경관으로서 龍潭八景이 전해지고 있다. 八景은 당시의 유명한 문인화가의 주관적 사고와 상상력을 통해 연상적·체험적 의미내용이 함축되어 있으며, 또한 삶의 일부로서 그 지역 경관상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龍潭八景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龍崗秋月: 용담의 鎮山이며 고을 이름이 유래를 제공하고 있는 龍崗山 위로 떠오른 가을달, 太古淸風: 太古亭 마루에서 느끼는 청량한 龍潭의 바람, 鷹峰落照: 용담읍내의 案山인 매봉에 깃드는 落照 松林垂鶴: 소나무가 울창한 송림마을의 소나무에 깃드는 학의 경치, 逍遙落雁: 매봉에서 뻗어내린 쇠독뿔이 끝 소요대에 날아드는 기러기의 모습, 玉泉暮鐘: 천년태고의 골짜기에 위치한 玉泉庵의 종소리, 三川書院: 背山臨水의 전망이 좋은 황산리 서원터의 경치 城南歸帆: 정자천과 안자천이 모이는 성남마을, 붉은 노을을 뒤집어 쓰고 나루터로 돌아오는 돛단배의 모습

瀟湘八景을 유래로 시작된 八景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觀念化·理想化 되는 가운데 視覺的 結束語를 유지한 채 龍潭八景에서도 그 典型的 類型을 잃지 않고 있으나(안휘준, 1988) 龍潭縣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의해 향토성 짙은 풍토요소의 반영으로 이 지역 景觀相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주요망점은 구읍내와 주변부락으로 산수 및 문화풍토 요소의 賞讚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3 龍潭八景의 景觀相

景	대상과 시점		변동요인	瀟湘八景과의 형식비교
	주요소*	주망점		
龍崗秋月	풍토요소	읍내	용강산에 걸린 가을달	계절 洞庭秋月(瀟湘典型)
太古淸風	풍토요소	상거 태고정	청량한 바람	시각 山市淸風(瀟湘類似型)
鷹峰落照	풍토요소	읍내	매봉에 깃드는 낙조	시각 漁村夕照(瀟湘類似型)
松林垂鶴	형체요소	송림마을	소나무와 학	시각 名所體驗型
逍遙落雁	형체요소	읍내	소요대의 기러기	순간 半沙落雁(瀟湘典型)
玉泉暮鐘	의미요소	읍내	옥천암의 종소리	시각 煙寺暮鐘(瀟湘典型)
三川書院	형체요소	황산리	서원	경년 名勝型
城南歸帆	의미요소	성남마을	돛단배	시각 遠浦歸帆(瀟湘典型)

Notes : \*1) 경관객체 특히 주대상의 경관요소에 따른 구분 (풍토요소: 자연현상이 지배적인 경관, 형체요소: 물리적 외형이 분명한 경관, 의미요소: 전설·상징적 가치가 내포된 경관)

표4. 龍潭八景의 景觀構造 分類

八景	경관형식	가시권적		조망구도 유형	조망 형태	경관영향권
		시거리 조망역	시거리 (Km)			
龍崗秋月	자연경관	원경	1.4	Feature L.	신앙형	시각적 영향권
太古淸風	복합경관	근경	0.5	Feature L.	전망형	경관적 영향권
鷹峰落照	자연경관	원경	1.6	Feature L.	풍경형	시각적 영향권
松林垂鶴	자연경관	중경	0.7	Feature L.	풍경형	경관적 영향권
逍遙落雁	자연경관	중경	0.6	Ephemeral L.	전망형	경관적 영향권
玉泉暮鐘	문화경관	원경	2.5	Focal L.	풍경형	심리적 영향권
三川書院	문화경관	원경	3.0	Feature L.	풍경형	물리적·경관적 영향권
城南歸帆	문화경관	원경	4.3	Panoramic L.	전망형	시각적 영향권

Notes \*1)주경관 대상의 형식적 요소에 따른 경관유형의 구분, \*2)경관주체로부터 경관객체의 거리 및 앙시 각도에 따른 구분(신앙형 45°

이상, 전망형 27° - 45°, 풍경형 27°이하),\*3)경관주체와 경관객체의 공간적 거리에 따른 경관체험 양상

표4에서 보듯이 이들 景의 주 可視圈은 0.5~4.3km로 이는 景觀的 또는 視覺的 영향권내 가장 이상적인 주거공간 또는 樂都(good settlement: utopia)를 희구하는 이 지역 주민의 생활양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하겠다.

IV. 龍潭에서의 地理理論模型 適用

龍潭지역의 공간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지역분석 틀로서 '지리이론모형의 개념적 도식'을 적용하여 용담지역의 구조와 그 현상의 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이 景觀概念圖로 나타나며 용담지역의 인간-환경 관계의 유의미성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그림 2에서는 지리이론모형 개념도와 관련하여 龍潭面을 중심으로 '內白虎-구봉산' 내청룡-지장산이 동서로 전개되고 북향으로는 祖山적인 봉화산과 土山인 龍崗山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향으로는 案山으로서 매봉산이 그리고 朝山으로서 성주봉이 용담읍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에워싸고 있는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용담지역은 전통적 기능이론으로서의 택리지이론의 주요 개념으로서 설명된 바 있는 "도시기본형으로서의 四神"의 내용에 부합하는 공간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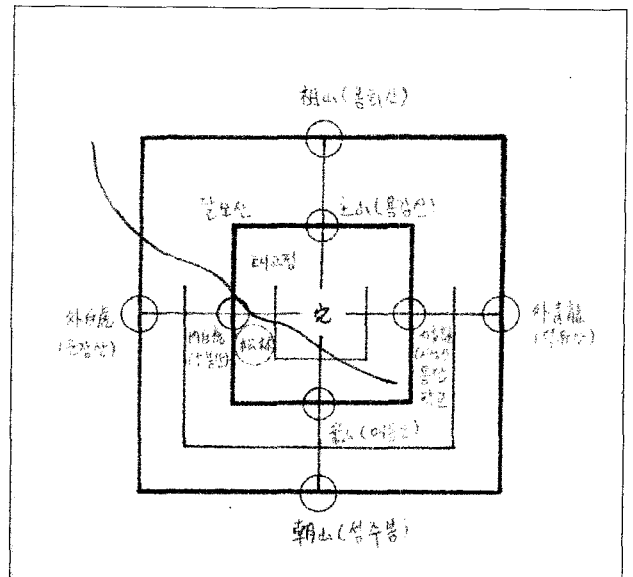


그림 2. 용담현의 지리경관개념도

김한배(1995)의 「한국 주거경관의 원형탐색」이란 연구

를 통하여 나타난 이론을 용담지역을 중심으로 전형적인 한국농촌마을의 경관구조와 대응시켜서 좀더 구체적인 경관특성을 찾아본다면 그 총체적인 특징은 多重性, 重疊性, 内部性 등의 특성이 엿보이고 있다. 즉 큰 틀로는 경계와 영역, 방향이 비교적 명료하지만 국지적으로는 영역들이 상호중첩되어 명료함 속의 애매함이 한국 전통마을의 전반적인 특징이자 매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례지역으로서의 용담지역의 의미를 제고하는 형식으로서 동북방향으로 용담읍을 역류하는 주자천이 안자천, 정자천, 달계천과 함께 용담읍을 외부공간과 차별화하는 "關鎮"을 이루고 있으며 현대적 의미에서의 지역경제인 재물의 생성을 의미하는 '積水'가 본 지점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지리이론모형」에서 체계화하였던 각 하위조건별로 간단히 분석정리하고자 한다.

#### 가. 水 □

용담읍 지역은 금강의 지류인 주자천을 주류로 정자천, 달계천, 안자천 등이 관진을 이루며 그 내부로 龍潭縣이 전개되어 이상적인 주거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지리이론모형상의 중요한 결정인자인 「逆水」를 예증할 수 있는 특기할 만한 지역인 바, 일차적으로 정자천과 달계천이 積水를 이루고 이것이 다시 주자천과 합류하여 금강을 이루며 용담현으로 逆水하고 있다.

#### 나. 野 勢

용담지역은 산지생활권의 지류곡지 등이 일부 개간된 산지생태권 내 입지적 集村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700m 내외의 산들이 에워싸고 있으나 본 지역의 평균 표고는 약 220m로 자체가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주위의 산으로 인해 일출이 늦어지거나 일광이 적어지던가 하는 환경적 결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다. 山 形

구봉산, 옥녀봉, 지장산, 봉화산 등으로 둘러싸인 용담지역은 주산격인 용강산을 비롯 四山이 모두 남향으로 낙하하는 형상을 하고 있으며, 그 산형이 秀麗端正, 綽綽野野하여 인간의 환경지각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龍潭八景에서 볼 수 있듯이 내부구조상 매봉산, 용강산 등은 친숙한 일상생활권내 朝宗山形의 이중적 구조로 보다 안락한 분위기를 유도한다.

#### 라. 土 色

용담지역은 특히 용담현 주변은 전라북도 개략 토양도

(1971)에 의하면 삼림지역은 양쇄토로서 배수가 매우 양호하며 사양질 또는 식양질 토양이다. 또한 하안부근은 범람지 및 충적토 또는 양쇄토로서 배수가 양호하며 특히 읍내는 회색토 및 충적토로 대체로 배수가 매우 양호하며 '死土'가 아니며, 그에 따라 위험도 없다. 그리고 수질 또한 상수원으로서 전혀 하자가 없으며 이는 용담면 상수원 개발과정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

#### 마. 水 理

水口와 관련되는 수리 중 주요한 요소는 「積水」인 바, 용담지역은 달계천, 안자천, 주자천이 각각 합류하여 積水를 이루므로 이론모형상 多富厚한 名村이 되어야 하겠지만 비교적 접근성이 낮고 水田으로 개간된 곡저평야인 관계로 인근 유사 취락경관을 보이는 운주, 고산, 운봉 등에 비해서는 지방중심지로서의 세력은 크게 확대하지는 못하였다.

#### 바. 朝 山 朝 水

朝山朝水는 주로 인간의 심성에 관련되는 것으로 朝山은 멀리 바라보아 맑고 가까이서는 맑고 깨끗해야하며 朝水는 용이 어울리듯 흘러들어야 하는 바, 용담지역의 조산형은 앞서 언급한 해동지도 및 용담팔경에서도 살폈듯이 전래로 유명한 실정이며 조수는 「水理」에서 분석되었듯이 매우 이상적인 來水形을 형성하고 있다.

### V. 結果 및 要約

전통지역이론을 준거로 본 龍潭面의 거주경관상은 한국의 典型的 高향이미지에서조차 엿볼 수 있듯이 자연경관요소가 인공경관요소보다 월등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山과 川이 가장 지배적이었다. 또한 10~30m 정도의 지각적 경관영역을 주거생활영역으로 경관적·시각적·심리적 영향권내 산수 조화를 통해 이상향을 추구하고자 하는 소박함이 인정된다. 한편 龍潭面內 전체마을의 경관구조는 風水形局圖와 흡사하며 실제의 주거경관과 연관시켜볼 때 한국고향마을의 總體的 경관특성인 多重性, 重疊性, 内部性 등을 內包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경관은 제 구성요소와 인간과의 일련의 관계로 표현될 수 있으며 그 관계성 속에는 현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과학적 설명으로 전부 설명되지 않는 有意味性을 내포하고 있다. 택리지이론에서의 「지리론」에서는 자연을 水口/野勢/山形/土色/水理/朝山朝水의 하위기준으로 구분하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地理論」

은 공간현상으로서의 "地理"를 분석함에 있어 환경으로서의 자연공간을 인간이 점유하는 공간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이론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전통주거이론으로서의 지리는 공간을 인간이 점유하는 내부공간과 殘部空間인 외부공간으로 구분하여 외부공간을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 자체의 구심적 질서내에서 형성된 공간과 인간을 포함하는 외적 환경으로서의 무한히 전개되는 원심적 공간인 자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심적 공간으로서의 하부체계를 구성요소의 총체로서 이해하고 있

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龍潭面의 산, 강, 들, 나무, 기타 定住地가 특이한 龍潭의 경관과 장소를 만들고 이러한 경관요소들이 어울려져 하나의 완결된 土地觀과 景觀性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통지역이론은 지역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과 주거경관 만족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며 총체적 景觀相을 이해하는 準據定立의 기초이론으로 더욱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1. 강동진(1998) 농촌 정주형 역사환경 보전방법론 고찰, 한국농촌계획학회지, 4(2), 41-57
2. 姜榮祚, 金英蘭(1991) 韓國八景의 形式과 立地特性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0, 27~36
3. 김덕현(1989) 최근한국촌락의 경관변화에 대한 이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문화지리역사(1), 문화지리학회
4. 金東必, 李基澈, 靑木陽二(1997) 韓國과 日本의 八景의 變化過程에 관한 기초적 고찰, 한국정원학회지, 15(1), 49~58
5. 金東鉉(1996) 歷史文化環境의 保存과 再生, 건축, 96(7), 3
6. 김한배(1995) 고향의 현상학적 시론: 한국 거주경관의 원형탐색, 터전, 3, 66-79
7. 김한배(1981) 문화경관적 상징성의 체계로 본 한국전통마을의 경관구조, 서울대 환경 대학원 석사논문
8. 김홍식(1987) 민족건축론, 서울, 한길사
9. 박서호, 박창홍(1993) 마을연구 방법론 정립에 관한 연구: 마을의 개념정립 및 인식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5(2), 71-90
10. 서주환, 이경진(1996) 농촌정주생활권에 있어서 경관정비계획방법에 관한 시론, 한국농촌계획학회지, 2(1), 79-90
11. 송화섭, 이상훈(1996) 진안의 마을신앙, 진안문화원
12. 安輝濬(1988) 韓國繪畫의 傳統, 문예출판사, 163~249
13. 韋元學(1993) 한국의 전통적 지역이론: 백리지연구, 新陽社, 147-173
14. 유재영(1993) 전북전래지명총람, 대우학술총서, 481-485
15. 李重煥(1987) 擇甲志, 이익성 譯, 을유문고
16. 이상문(1995) 농촌지역 공간계획체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지, 1(1), 35-48
17. 임승빈, 조순재, 박창석(1995) 문화(집단)마을과 기존농촌마을의 비교평가에 관한연구: 월암 1리와 우항 2리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계획학회지, 1(1), 49-64
18. 전북대 박물관, 1993, 진안 용담댐건설 수몰예정지 문화재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진안군
19. 전북대학교 진라문화연구소, 1989, 진안지방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7-237
20. 전형무(1997) 그리운 고향산천(고을이름 그대로 되는 용담), 진안문화원
21. \_\_\_\_\_(1996) 용담지역문화1, 역사의향기, 진안문화원
22. 진안문화원(1997) 진안문화, 6, 193-194,
23. 진안군, 1982, 진안의 맥
24. 진안군, 1995, 통계연보
25. 秦熙成, 盧載鉉(1991) 八景의 意味體驗에 따른 風景概念의 構造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9(1), 31~43
26. 崔杞秀(1989) 曲과 景에 나타난 韓國傳統 景觀構造의 解釋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학위논문
27. C.A. Doxiadis(1968) Ekistics: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Human Settlements, Hutchinson Co. Ltd, London, p936
28. 西垣安比古(1991) 李退溪「陶山十二曲」に觀る「すまう」ことの意味: 「すまう」ことの場所論的研究3, 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集, 420, 83-93